

司書라는 「職」을 생각한다

司書職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있다. 전문직이란 특정 분야의 학문과 일을 깊이 연구하여 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즉, 전문가들의 職을 의미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궁극적인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동안 무수히 논의되어온 바 있어 결코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그동안 우리 사서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발전에 직·간접으로 공헌하여 왔으며 사회적 인식부족을 개의치 않으면서 묵묵히 현장에서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관련정책부서에서는 사서들의 역할과 기능을 폄하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서직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왜 이렇게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는 우리들이 자초해 온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문직이고자 하는데 실패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사달라는 책이나 사 주고, 빌려달라는 책이나 빌려 주면서 우리는 전문직이라는 언어도단의 주장을 해왔다. 전가의 보도와 같이 써먹던 분류편목도 더 이상 사서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행정직도 정립업무에서 1년 정도의 세월만 보내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해 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도 이에 대처하는 사서들의 자세는 조금도 놀라거나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식에 운집했던 인파가 분과별 토의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디론가 썰물처럼 빠져 버리는 현상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둘째로 우리는 도서관 이용자인 “고객”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봉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은 물론 다르다 할지라도 지난 수 십년동안 각종 백화점과 같은 유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고객유치를 위한 피나는 노력은 놀라우리만큼 집요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지점설치나 전산화를 통해 고객의 편리를 도모해 왔으며, 그 외의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어떤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분관의 설치나 도서관의 숫적 증가를 위한 노력도 실패했으며 전산화도 이용자위주보다는 관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유치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신상문제에는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용자없는 도서관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세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참모습을 사회와 이웃에게 알리는데 실패했다. 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정보시대의 각종 매체와 다양한 기술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아직도 도서관은 책이나 빌려주는 곳으로만 인식되어 있다. 특정 기구나 활동의 광범위한 사회적 보급과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자연발생적이며 과거지향성을 갖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후진안주적인 방법과, 인위적 창조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아울러 보편성을 내재한 선진지향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양자 간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50여년동안 반복되어온 우리의 비명은 사서집단내의 불과 극소수에 의한 소리였으며 대부분의 사서들은 불평과 불만을 지니고는 있으면서도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결집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면해 버리는 경험을 여러번 하였다. 우리는 “독서진흥법”이라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악법의 제정을 저지할 때 힘을 결집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97년부터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는 문제를 관철시킬 때 또 한번 우리의 힘을 총집결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제 우리의 참모습과 참된 용기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는 다소의 모험과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보다 창조적이며 선진지향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네번째로 우리는 우리 끼리의 자체용화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전문사서직이 되기 위한 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용자를 위한 봉사는 물론 미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일거리들 눈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사서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일체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경로로 사서가 되었는지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기존의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끼리의 내부적 단합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들의 이러한 시행착오와 실패가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우리들의 숙원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집념과 관심이 곧 세계화 속의 새롭고 참신한 司書職의 진정한 필수요건이며 전문직다운 우리 사서들의 자세라고 믿는다. 아울러 현재 우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司書라는 명칭 자체의 改名도 일제잔재청산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직 명칭들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은주/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